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중 간 전쟁 위험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2면

챗GPT 논란
로봇이 기사를 쓸 수 있을까?
6~7면

최원형 <한겨레> 기자 vs 이해영 한신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만 묻는 것이 문제인 까닭 4면

"50억 클럽" 부실 수사와
이재명 흠집 내기
8면

이상민 탄핵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책임도

물어야 한다

관련 기사 3면



오직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만 발행하는

노동자 연대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노동자 연대> 신문이 윤석열 퇴진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정기 후원 신청



사진 출처: 미 해군

중국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미군 격추 후에도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공화당이 누가 중국에 더 강경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중 간 전쟁 위험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미국이 자국 영공으로 날아온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극적인 사건은 세계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F-22 전투기가 풍선을 쏘기도 전에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블링컨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만날 예정이었다. 블링컨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그의 분노에는 소름끼치게 웃기는 점이 있다.

블링컨이 일하는 미국 정부는 타국 영토에서 드론 암살 작전을 벌일 정도로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정부다. 또, 미국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전 세계 전자 통신망을 감청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거의 똑같은 일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벌어진 바 있다. 1960년 5월 소련 군이 미군의 U-2 정찰기를 격추하고 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 대위를 생포한 것이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CIA)는 소련 상공에서 고고도 정찰 작전을 펴고 있었다.

미국은 이 격추에 거짓말로 대응했다. 그 U-2 정찰기는 항로를 이탈한 기상관측기라고 말이다. 이에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는 파워스의 생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존 사실과 그가 첩보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역사가 리처드 올더스는 [2월 3일치 <워싱턴 포스트>에서 — 역사] 이렇게 지적한다. “중국 정부의 대표자들은 1960년 당시의 미국 대표자들을 그럴싸하게 따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U-2 위기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성명을 거의 그대로 베낀 듯한 발표에서, 미국 몬태나주 상공으로 날아든 그 풍선은 항로를 이탈한 기상 관측 기구라고 말했다.”

U-2 격추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파리에서 흐루쇼프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그 회담으로 두 초강대국의 갈등이 해빙 국면으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사과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회담은 파탄 났다.

올더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U-2 위기는 냉전 중 매우 위험했던 한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흐루쇼프는 파리에서 아이젠하워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을 때처럼 이듬해 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코를 한껏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해 여름 베를린 위기와 이듬해 쿠바 미사일 위기로 두 초강대국은 핵전쟁에 가까워졌다.”

매파

블링컨과 시진핑의 만남을 두고도 비슷한 기대가 있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최근 몇 달 새 변해 왔다. 중국은 실패한 ‘제로 코로나’에 따른 고립에서 벗어나 특히 서방 지배계급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하는 듯하다.

시진핑의 수석 경제 자문인 중국 국무원 부총리 류허는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해 기업 최고경영자들 앞에서 “중국이 돌아왔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로비가 있다. 일단의 군장성들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미국 공군 기동사령부 사령관 마이크 미니한은 고위 장교들에게 보낸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내 직감으로는 2025년에 우리가 전쟁을 치를 것 같다.”

현재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런 전쟁 담론을 확대하고 있다. 공화당 원내대표이자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는 매우 도발적인 대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블링컨과 그의 상사 바이든은 중국의 정찰 풍선에 그토록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심중팔구 공화당을 의식했을 것이다.

중국에도 강경파가 있다. 이들은 분명 이번 위기를 이용할 것이다. 저고도 인공위성으로도 충분했을 정보 수집을 위해 이토록 민감한 시기에 굳이 정찰 풍선을 띄운 것의 배후에는 그들이 있었을 수 있다.

1960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제국주의 경쟁을 벌이는 두 핵무장 강대국이 서로에게 품는 의심과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사건은 또 다른 핵무장 강대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서방의 그 동맹국들이 벌이는 전쟁에서 양측이 봄철 공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이 강대국들의 경쟁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번역 김준호

출처 Alex Callinicos, “War threat balloons between US and China”, (2023. 2. 7)

이상민 탄핵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책임도 물어야 한다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처 과정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연한 결과다.

이상민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도, 파면될 수도 있다.

이날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의 탄핵 사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다. ... 참사 예방·대응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 ... 유가족들이 ... 적절한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

이상민은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이 없는 사고라고 발뺌했고,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희생자 명단 문제 등에 대해 위증을 했다.

이런 일들은 그가 파면돼야 마땅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상민을 끝까지 감쌌다.

이상민이 국민 생명 보호 임무의 담당 장관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면, 윤석열은 해당 임무의 최고 책임자이다. 또한 이상민의 임명자다.

무엇보다 윤석열 자신의 ‘공권력’ 사용 우선순위가 참사 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윤석열은 집권 후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려고 경찰력 등을 집회와 시위, 좌파 사찰 등에 더 집중하도록 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그 일환이었다). 이런 억압적 ‘공권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범정부적으로 벌이라고 직접 지시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에서 드러나듯,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계급 등 대중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그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지시·강조 사항에 따라 이태원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참사 당일, 경찰·서울시·용산구청 등 이태원 다중 인파 밀집에 대비해야 할 기관들이 당일 집회와 마약 수사에 전념했다.

사전 예측 보고도, 참사 직전 빗발친 112와 119 신고 전화도 모두 묵살된 배경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윤석열이 이상민을 감싸고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은 이상민이 측근 실세라서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책임과 참사 연관성을 덮으려는 교활한 처사인 것이다.

따라서 이상민 탄핵은 윤석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상민 국회 탄핵은 민주당·정의

당·기본소득당 3당이 당론으로 합의해 3당 소속 의원 전원(176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179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그동안 야당들(특히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모두 동의했던,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었던 개혁들이 떠오른다. 왜 그 문제들은 처리되지 않고 있는가.

이들 3당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이태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의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의 책임 연관성을 적시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

호·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 관리가 부실했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실은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난했다.

윤석열과 여권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탄핵소추를 기각해 주길 바란다. 윤석열은 밀리지 않기 위해 반대 세력을 더 옥죄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 반대 운동은 이상민 탄핵을 발판 삼아 윤석열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구축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이 진정한 추모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긴 글]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 ★ 미국 의회의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
- ★ 난방비 인상이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최원형 <한겨레> 기자 vs 이해영 한신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만 묻는 것이 문제인 까닭

최원형 <한겨레> 기자가 이해영 교수의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사계절)를 비판하는 서평을 썼다(2월 4일자).

비판의 골자는 이해영 교수가 “러시아에 전쟁 책임의 면죄부”를 주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결권에 대한 논의”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원형 기자의 주장은 통념에 속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고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을 나토의 무기 지원까지 포함해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흔하다.

반면, 이해영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단극 체제”가 러시아를 적으로 삼고 옥죄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해영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친서방 언론의 전쟁 프로파간다를 끊임없이 폭로해 왔다(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간과하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최원형 기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한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서 전쟁의 성격을 찾다 보니, 최원형 기자는 미국 등 서방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하는 문제를 전쟁을 분석하는 데서 덜 중요하게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성격이다.

예컨대, ‘한국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북한의 남침이라는 점만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 되면 한국전쟁이 미국과 소련(과 중국) 등 동·서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는 점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 그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더라도, 베트남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해 보자.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 성격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대결하는 제국주의 간 대리전의 성격이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배적 성격도 동·서 제국주의 간 각축전이다.

자결권 문제

최원형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결권”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해영 교수의 책에서 “침략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해영 교수가 러시아의 침략보다 2014년 이후 “내전의 계속”이라는 측면에 더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전도 이미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 성격을 상당 정도 갖고 있었다.

물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해야 한다. 푸틴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원웅 본지 기자가 잘 지적했듯이,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지느냐”다.(본지의 온라인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을 읽어 보시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미국 등 나토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이다.

미국 등 나토의 승리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토가 러시아를 이기면, 조지아 군대가 러시아가 병합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로 쳐들어가려 할 것이다.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은 그 여세를 몰아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 되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간 대결에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것으로는 약소 민족들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민족자결권을 확고하게 지지하지만, 민족자결권을 결코 추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제국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국제주의

<한겨레>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조로 말하자면, <한겨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무기 지원”을 호소한 직후 <한겨레>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실었다.

“제국주의적 의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책임을 명백히 하되, 전쟁을 끝낼 협상의 실마리가 만들어지도록 각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김동민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은 <한겨레>의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한겨레 신문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보도의 취재원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 미국과 영국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라고는 하지만 키예프에 한정된 지역에서 피상적으로 보고들은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미국 네오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쟁연구소의 발표도 그대로 인용한다.”(<경기신문>, 2022년 7월 19일자)

비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한국은 점차 주요 전쟁 관여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사는 진보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의 나토 지원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것이 나토의 확전과 확장에 반대하는 국제적 진보 운동의 일부로 자리매김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서방에서 자국 정부의 전쟁 노력을 반대하는 운동은 푸틴의 전쟁 노력을 반대하는 러시아 국내 저항에 연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푸틴이 자국 내 반전 운동을 “친서방,” “친나토”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말이다.

교전국 좌파들이 자국 정부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는 국제주의야말로 전쟁을 끝낼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러시아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한겨레>의 논조는 그런 운동을 건설하는 것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군 철군!
윤석열 정부 무기 지원 반대!

나토 확전 반대!

2월 25일(토) 오후 3시

※ 집회 후 을지로-시청으로 행진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인근

[5호선 광화문역 4번 출구, 광화문타워 옆]

문의 010-7550-2131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지진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지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우리는 잔해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집을 잃은 모두에게 물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월 6일 오전 4시 28분(현지 시각) 튀르키예 남부 파자르스크 지방에서 진도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국제 지진 관측 기관들은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튀르키예 북동부 해안 도시 트라브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강진의 충격이 느껴졌다.

현지 뉴스 보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끔찍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주택, 공공건물, 주요 도로가 파괴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잔해에 깔렸다.

혹한 때문에 지진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 저체온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수색·구조가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잔해에 깔린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바란다. 마라시주(州)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전한다.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들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외친다. “지진이 목숨을 앗아가도, 연대는



파라시 지방의 폐허

대비할 수 있었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이윤을 우선했다. 강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건물

살리자!”

우리는 한껏 연대를 보낼 것이지만,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많은 지진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야 함을 지적해 왔다. 지질학자 나시 괴튀르 교수는 한 TV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마라시 지방을 주목해야 합니

다.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를 줄일 조처들을 즉각 취해야 합니다.”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과 2020년 엘라지 지진 때처럼,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지진 때문이 아니다. 지진 피해를 줄일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정치인들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윤을 우선하느라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겪도록 내버려 뒀다.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지진 피해자를 구출하고 잔해를 빠르게 치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건축 규정을 어긴 주택 건설을 주도한 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진 대비에 녹장을 부린 당국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진으로 파괴된 공공시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한편, 현지 소식에 따르면 시리아의 지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난민 천막촌의 파괴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수많은 가족이 파괴되고 수색·구조팀도 부족한 탓에 아트메·사르마다·다르쿠쉬·하림 지방에서 사람들이 무력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참사에 대응해 난민들에 대한 연대를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진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도움의 손길 없이 혹한에 내버려진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DSIP)

출처 Revolutionary Socialist Workers Party (DSIP). “Turkish socialists blame government for scale of earthquake deaths”. (2023. 2. 6)

건설노조가 “부패·강패 집단”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과 건설노조 내 ‘관행’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마치 공갈 갈취범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건설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공격이다.

이는 건설 자본이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이윤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건설 노동자의 조건과 저항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고용 불안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 자본들의 오랜 관행인 임금 체불과 안전 규정 위반 등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건설 자본들의 이런 위법 행위를 감독·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현장 관행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과 노조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뒀선 안 된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를 수주하는 산업이다. 지금 건설 현장엔 일용직을 많이 쓰는 건설회사가 더 오래 살아 남을 수 있는 구조다.

고용 불안과 일자리 경쟁을 줄이려면, 건설 기능공을 중심으로 정규직을 많이 보유하는 업체가 건설 공사를 더 많이 수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산업 재해와 부실 시공 등도 줄일 수 있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많이들 일을 하지 못한다.

건설노조는 전체 건설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조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 우리 조합원만의 채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싸워야 한다.

현재 건설 현장엔 골병이 들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다. 노동강도를 낮추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도 지키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비조합원들의 지지와 동참을 높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과거의 투쟁 사례들이 이를 보여 준다.

비조합원

예전에 건설 자본들은 타워크레인 1대로 더 많은 건물을 동시에 짓게 하기 위해, 건물들 중간 지점 공사장 바닥에 타워크레인을 철 와이어로 겨우 지탱하면서 위험하게 건물을 짓게 했다. 이런 방식은 오랫동안 합법이었는데, 이 때문에 태풍이 오면 타워크레인이 많이 넘어졌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였

다. 그 결과 시공하고 있는 건물 외벽에 타워크레인을 고정시켜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3분의 1로 줄고, 고용도 30퍼센트 이상 늘어났다. 당시 일시적이거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완전 고용됐다.

대구지역의 토목·건축 노동조합은 그 지역의 직종 전체(비조합원 포함)가 적용되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싸운 적이 있다.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지지한 많은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김승섭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잠식해 실업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것은 내가 쓴 문장이 아니다. 챗GPT라는 프로그램에게 이 기사를 대신 써 달라고 했더니 나온 문장이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말 출시된 대단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다.

챗GPT를 이용하면 몇 초 만에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작성할 수 있다. 편지, 대본, 이야기, 노랫말, 컴퓨터 코드, 신문 기사 등.

챗GPT가 구글 검색보다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찾아서 몇 단락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주는 경우도 많다.

챗GPT를 개발한 기업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달-E(Dall-E)’도 대단하다.

챗GPT가 출시된 직후, 인공지능이 수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부정행위

최근에는 영악한 학생들이 챗GPT로 숙제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기사도 나왔다.

그런데 필자는 챗GPT로 수업 계획과 평가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교사의 이야기도 들었다.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듯, 인공지능은 노동의 지루함·스트레스·고단함을 덜고 우리를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모든 기술 발전이 그랬듯,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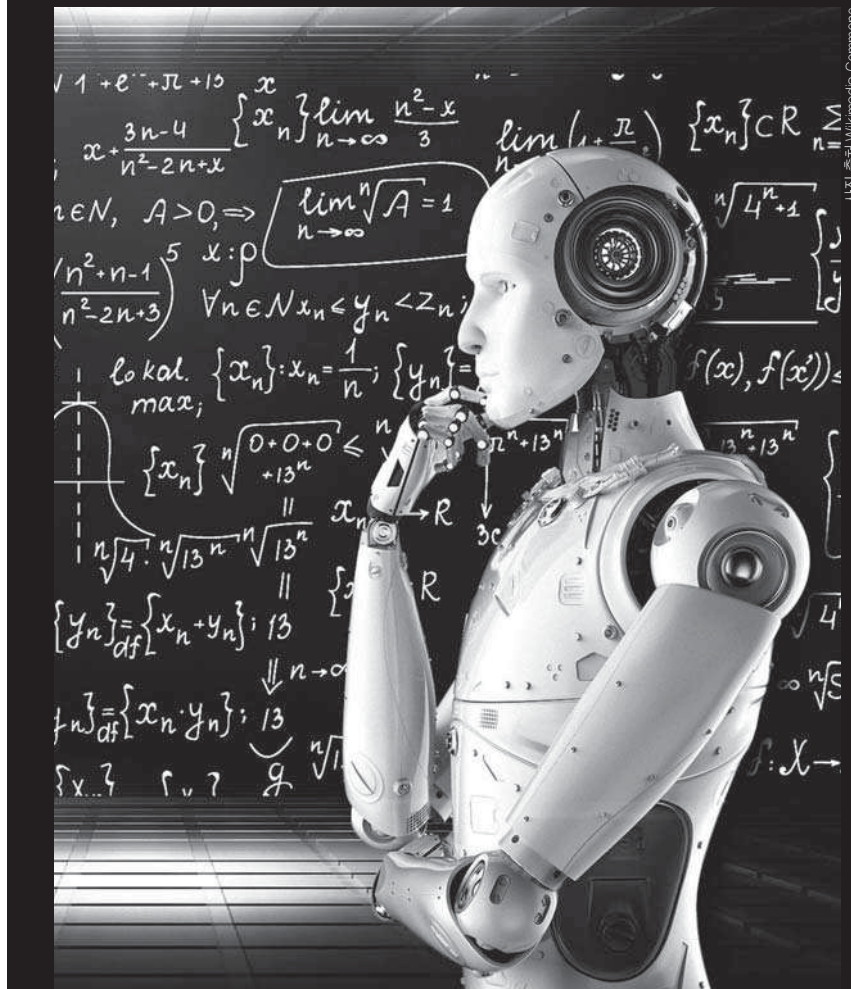
챗GPT가 어떻게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논쟁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앨지에 관한 것이다. 혹은 영국 노동당 의원 대런 존스의 표현처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증강”할지에 관한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 우리를 더 “효율적”이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을지, 우리를 더 많이 쥐어짜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따지는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둘 다 하고 있다.

이전이라면 콜센터 직원이 담당했을 업무를 이제 챗봇이 수행하곤 한다.

2022년 12월 캐나다 법원은 한 노동자에게, “휴친 시간”을 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을 “업무 관련 작업”에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인공지능 감시 소프트웨어의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의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자 안철수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챗GPT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소통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의 한계가 무엇인지 영국의 사회주의 언론인이 살펴본다.

인공지능은 노동의 지루함·스트레스·고단함을 덜고 우리를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듯,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판정이 그 근거였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사업 거리다. 예컨대 ‘오픈AI’는 다른 기업들에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부과해 다음해 10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여전히 인간의 노동과 노력이다. 우선, 챗GPT와 달-E 모두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방대한 정보를 통해 “학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제공한 텍스트·이미지 데이터도 “학습”에 이용한다. 그런 정보 모두 인간이 만들어서 인터넷

인공지능도

인간의 노동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의 노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반영하고 증폭시킨다.

에 올린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도 인간이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어떤 정보를 찾고, 찾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분류할지 일러 줘야 하는 것이다.

챗GPT와 달-E가 정보를 해석하고 사용자의 요청·명령에 응답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도 인간이 작성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인간보다 작업을 더 빨리, 더 잘 수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 없이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 노동의 가치와 필수 불가결함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해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우리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사고파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노동해야 한다.

인간의 노동이 없다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열대와 창고를 가득 채운 재화도, 인터넷에 저장되고 거래되는 데이터도, 이 모든 것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기계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도 인간의 노동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는,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총량이 상품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평균적인 노동자가 평균적인 수단으로 수행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수준의 노동을 말한다)의 양이 많을수록 그 상품의 가치는 높아진다.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사용자와 기업은 판매 수익의 일부만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이윤을 남길 수

▶ 7면으로 이어짐

▶ 6면에서 이어짐

있다. 그 나머지가 바로 이윤의 원천이다.

그리고 사용자들과 기업들은 상품을 더 빨리 생산하고, 노동에 더 적게 지출할 수 있다면 이윤을 더 많이 남겨서 경쟁자들을 앞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산 속도를 높이거나, 노동자를 더 많이 쥐어짜거나, 노동자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되는 신기술을 찾는 데에 언제나 골몰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이 기술에 투자한다는 것이 실제로 뜻하는 바는, 그 기술을 만드는 데에 이미 투입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런 노동은 인간의 산 노동이 아니라 죽은 노동이다. 그리고 죽은 노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오히려 상품 생산에 필요한 인간 노동의 양이 감소해 상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기술과 죽은 노동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이윤을 잠식한다.

위기

즉, 자본주의가 인간의 노동을 기술로 대체하려 할수록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본주의가 인간 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몇몇 혁신적 기술 발전에도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이다.

어떤 기술이 한 부문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더라도, 그 기술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바로 그래서 다른 사회, 기술이 실제로 우리를 노동의 고단함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사회를 얻어 내기 위해 싸울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챗 GPT에게 물었더니, 챗 GPT는 “고귀하고 소중한 목표입니다” 하고 답했다.



뉴스 취재도 인간 노동에 의존한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자본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가

인공지능도 인간의 노동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의 노동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도 반영하고 증폭시킨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몇몇 이미지를 보면 매우 잘 알 수 있다.

‘렌사’는 사용자에게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매직 아바타”(사용자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판매하는 앱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렌사는 자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수많은 가상의 초상화를 생성한다.

그런데 남성 사용자는 우주비행사나 슈퍼히어로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 사용자는 지나치게 성적으로 묘사되곤 한다.

렌사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여성은 대개 가슴이 크고 나체이거나 성적인 포즈를 취한 것으로 표현된다.

흑인 여성들은 이목구비가 백인과 유사하게 바뀌고, 피부색이 밝아지곤 한다.

아시아계인 기술 전문 언론인 펠리사 헤이킬라는 렌사를 써 봤더니 자신이 엄청나게 성적으로 묘사되고 자신의 원래 모습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썼다.

렌사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반영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렌사를 비롯한 인기 있는 [이미지 생성] 앱들은 라이온-5B라는 공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헤이킬라는 라이온-5B에서 “아시아인”을 검색해 보고 이렇게 썼다. “검색 결과는 온통 포르노였다. 엄청나게 많은 포르노 말이다. 인공지능이 ‘아시아

인’이라는 단어와 연관 짓는 것은 나체의 동아시아 여성뿐이었다.”

인터넷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방대한 포르노 산업의 본거지다.

포르노는 최악의 성차별적·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포르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광고와 미디어, 그리고 사회의 모든 측면이 인종차별적 관념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물들어 있고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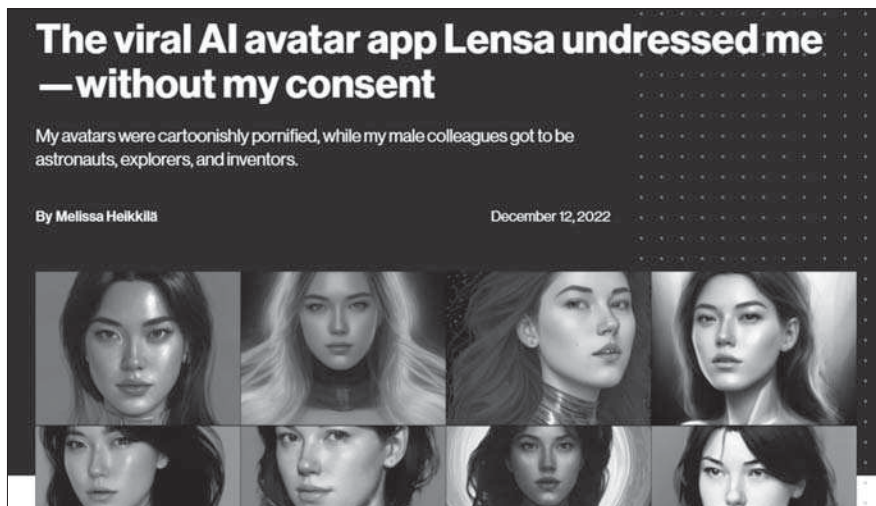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다음 다시 게워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작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근본에서 제어하는 것은 결국 제작자다. 제작자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정보를 산출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포르노를 계속 재생산하는 까닭은 그것이 제작자들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포르노]와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이윤을 위해 신체를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그런 상품화의 가장 노골적이고 고약한 사례를 찾아서 재생산하는 것이 놀랄 일이겠는가.



“렌사’ 앱이 내 옷을 벗겼다” 인공지능은 상품화의 가장 노골적이고 고약한 사례를 재생산한다

출처 Nick Clark, “Can a robot write for a newspaper?”. (2023. 1. 15)



대장동 광상도 무죄 판결

“50억 클럽” 부실 수사는 이재명 수사가 흠집 내기임을 보여 준다

대장동 개발 관련 유일한 뇌물 혐의 구속자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일원인 전 국민의힘 의원 광상도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었다.

예상 밖 판결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권력자 무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광상도의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대장동 일당이 광상도 아들에게 준 돈은 광상도에게 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광상도는 검사 출신의 2선 국회의원이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권력자이다. 사람들은 광상도 아들이 아니라면 어느 회사가 고작 2~3년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주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게다가 50억 원을 이미 받은 광상도의 무죄는 같은 대장동 건으로 기소조차 안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윤석열 부처 여당, 우파 언론까지 모두 범죄자 취급하며 대표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과도 대비된다. 이재명의 측근들은 돈을 받은 증거도 없이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만으로 구속돼 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

광상도 뇌물 혐의의 스토리는 이렇다.

- 화천대유(대장동 개발용으로 만든 김만배 소유 회사)와 하나은행이 맺은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험에 놓이자, 법조 출입 기자인 김만배가 인맥을 활용해 광상도에게 로비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 이 대가로 김만배는 50억 원을 주기로 했고, 광상도의 아들 광병채가 화천대유에 취업했다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중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

이 스토리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발견됐다(회계사 정영학은 김만배의 측근이었는데, 여러 대화를 보협용으로 녹음해 뒀다가 형량 거래용으로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 이른바



여권과 검찰은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50억 클럽”에는 권순일(전 대법관), 최재경(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김만배의 소속 회사였던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있다.

권순일, 박영수 등은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월 15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았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특혜 분양을 받았다.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도 자녀가 김만배에게서 금전 혜택을 받았다.

대장동 작전 실행 초기에 김만배 일당은 토지 구매 자금(종잣돈)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됐다. 그때, 박영수는 그 수사를 무마해 준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수사 담당자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낮게 봤다. 그럼으로써, “50억 클럽”을 언급한 김만배의 발언 자체가 나머지 일당들에게 지분을 더 적게 주려고 허풍을 친 거라는 김만배의 해명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또, 권순일, 박영수 등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50억 원에 못 미치므로, “50억 원”이라는 약속의 실체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무시하고,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떨어

어진다면 “50억 클럽”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 오갔는데도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다.

“50억 클럽” 부실 수사와 이재명 흠집 내기

이번 판결은 검찰이 이재명의 이미지에 먹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권이 바뀐 만큼 “50억 클럽”도 수사를 하겠다는 둥,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맡겠다는 둥 많은 말을 했지만, 그뿐이었다. 속죄양처럼 광상도 하나만 달랑 구속했다. 그러나 그마저 부실 수사였던 것이다.

가령 박영수 전 특검,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 등의 자녀가 김만배에게 금전 혜택을 받은 것을 “50억 클럽”의

뇌물 제공 방식이라고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수상한 일이다(광상도가 남육을 통해 직접 받은 5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확증편향처럼 인용하며, 이재명을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만 이용했을 뿐이다. 법원은 그 약점을 이용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자신의 선배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재판부가 법조 게이트로 발전할 위험을 차단하려고 50억 클럽의 실체 자체를 부인해 버림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수사도 꼬이게 됐다.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재전언(들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정도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의도가 무엇이든)도, 그동안 검찰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유동규와 남육의 진술만으로 이재명을 유죄로 몰아온 것의 허점을 드러냈다.

결국 검찰이 어찌어찌해서 이재명을 기소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한편, 광상도의 뇌물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려면 하나는 행 최고위 경영진(특히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과 광상도, 대장동 개발 사업 간의 관계를 더 파야 한다. 이는 검찰·경찰 모두 부담스러워 꺼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결국 광상도 무죄 판결은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이미지 먹칠하기일뿐 총체적 진실 규명과는 관계없다는 점을 서민층 사람들이 열받는 방식으로 드러낸 셈이다.

온라인
토론회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2월 15일(수) 오후 8시
발제 장호종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215-meeting